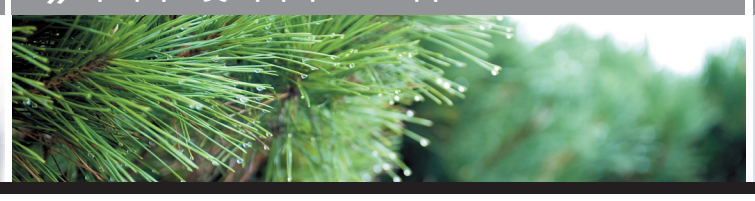
제 1581 호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media.khu.ac.kr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5 ≫ 교수사회 대표 선거 진행

7 ≫ 우리학교 꽃 이야기 18 : 소나무



학사다이어리 – 정기강의평가 실시

기간 : 12월 1일~26일
대상 : 양 캠퍼스 재학생 전원
*강의평가 실시 학생은 12월 15일부터 성적입력 완료시 성적조회 가능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12월 31일부터 성적조회 가능

당선

'오늘의 경희' '허:들' 'ALLFami'

서울캠
총학·총여·총유 선거결과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 각각 단선으로 치러진 총학생회(총학), 총여학생회(총여) 총유학생회(총유) 선거결과, 총학에 '오늘의 경희'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총여에 '허:들' 선본이 당선됐다. 총유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일이 27일까지 연장되는 우여곡절 끝에 'ALLFami' 선본이 당선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제47대 총학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1,883명 중 51.30%(6,093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의 경희'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후보가 찬성표 75.03%(4,574명), 반대표 19.5%(1,189명)로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학우들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1년간 더 많이, 또 더 자주 소통하는 총학생회장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제28대 총여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6,204명 중 52.13%(3,234명)이 참가한 가운데, '허:들' 선본의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이바름(한약학 2013) 부후보가 77.92%(2,520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금 당선자는 "저희를 선택해주신 학우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저희의 공약에 대한 응원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당선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5대 총유 선거'의 경우, 'ALLFami' 선본의 오아랑(무역학 2012) 정후보와 마명원(컨벤션경영학 2013) 부후보가 단선으로 출마했으나 예정된 투표일이었던 지난 26일까지 유효투표율 50%을 넘기지 못해 투표가 하루 더 연장됐다. 이는 2011년 총유학생회가 출범한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었다. 결국 연장 투표 끝에 투표율 50.89%로 가까스로 넘겨 개표가 가능했다. 개표 결과 86.0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오아랑 당선자는 "선거와 투표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잘 돼서 기분이 좋다"며 "어렵게 당선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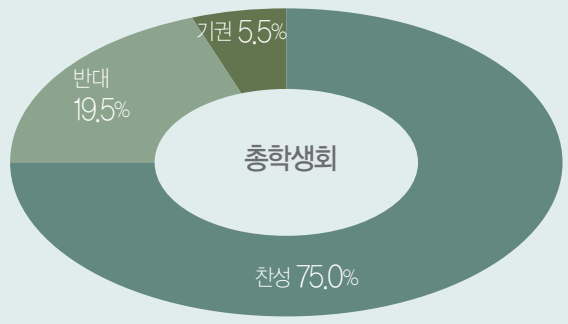
한편,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투표제의 경우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투표함 이동부터 검표와 개표까지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개표과정이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1.7%pt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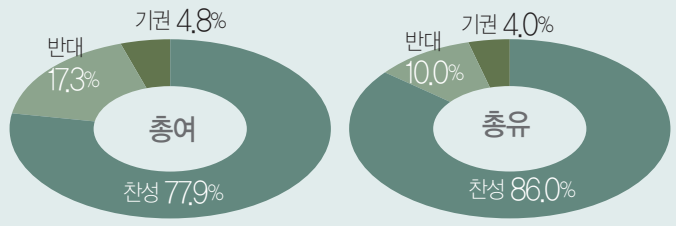
투표 시작 첫날인 24일, 총학과 총여 각각 24.72%, 23.05%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26일 투표율은 전날 대비 10%pt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 유권자 중 각각 19.9%와 17.4%에 달하는 정경대학과 경영대학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저조한 점이 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이랑(사학 2008) 위원장은 "전자투표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마친데 의의를 둔다"며 "미흡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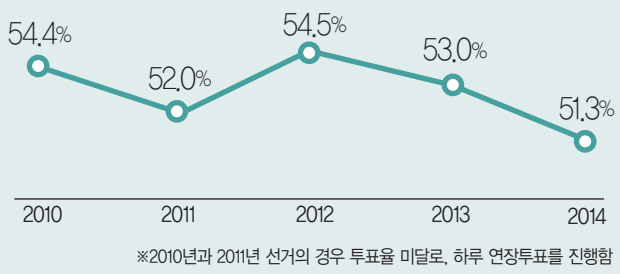
▶관련기사 5면

2014 총학·총여·총유 투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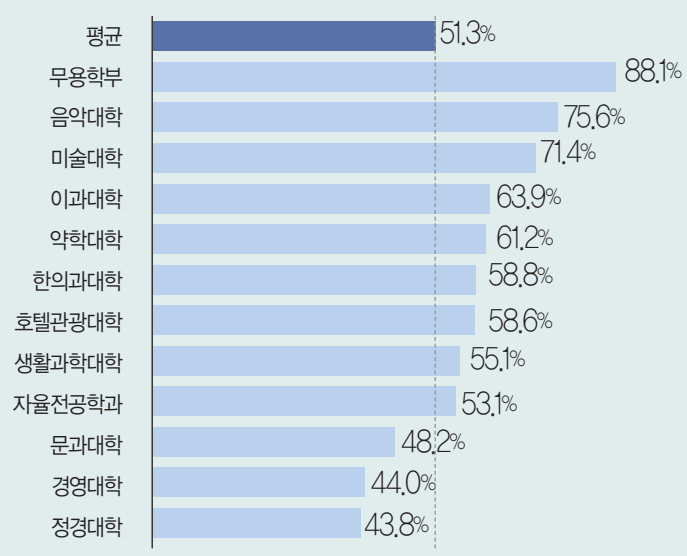


2010–2014 서울캠 총학 투표율



※2010년과 2011년 선거의 경우 투표율 미달로, 하루 연장투표를 진행함

2014 서울캠 총학 단과대학별 투표율 및 결과



Newsmaker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혜인 정치외교학(2009) 양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양 혐의 전면 부인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세월호 참사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양의 첫 공판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침묵행진을 제안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 양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용 씨가 서울광장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후 두 차례의 집회에서도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용 양 측은 "신고했던 장소를 통해 가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먼저 막아섰다"라며 "집회 신고시간 또한 정확히 지켰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학주보는 지난 11월 28일 용 양을 만나 재판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기소이유는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6월 28일 세 차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다. 추모행사는 관혼상제에 관련된 것으로 집회신고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이 침묵시위 중 협조를 요청해 집회로 신고한 뒤부터, 신고범위를 벗어났다고 잡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5월 18일에는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진압했다. 6월 10일 추모행진 역시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6월 28일의 경우 해산명령을 듣고 나오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가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맞춰 이뤄진 것을 두고 문제제기했다고 들었다.

"지난 10월 31일 기소됐다. 반년 동안 묵혀뒀던 사건을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함께 기소하는 것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더불어 이제 기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든다."

-세월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전히 국민 간담회가 하루에 10건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학년이다.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압박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모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참사 200일 추모행사 등만 보고 지냈기 때문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 수사기록 등도 제대로 공유가 안 돼서 아직 변론 준비도 다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진상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학교 학우들도 관심 갖고,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

용 양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15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세월호 참사 274일이 되는 날이다.

그들도 아주 웃겨?! 루쉰 《고사신편》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㊺

배도임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루쉰(魯迅, 1881~1936)은 20대에 의사가 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때 '환등기 필름' 속에서 중국의 비참한 현실과 정신이 마비된 동포를 보고, 사람에게는 정신의 병이 훨씬 큰 문제이며, 정신의 병을 고치려면 문학밖에는 없다고 깨닫는다.

이후 루쉰은 한 친구와 '쇠로 된 방[鐵屋]'의 비유를 들어 중국의 미래, 즉 '희망'을 논한다. 그리하여 중국 최초의 현대 백화소설인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써서 진보적인 잡지 《신청년(新青年)》에 발표한다. 그는 첫번째 소설집 《외침(吶喊)》(15편 수록, 1923), 두번째 소설집 《방황(彷徨)》(11편 수록, 1926)과 세번째 소설집 《고사신편(故事新編)》(8편 수록, 1936)을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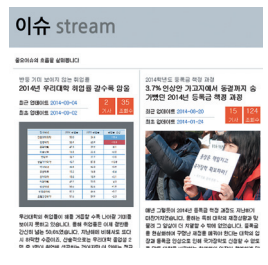
루쉰은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다.

첫번째 소설집의 제목인 '외침'은 중국어로 개전의 북소리가 울리면 선두 병사들이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외쳤던 함성을 가리킨다. 이는 어리석은 민중을 각성시키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던 루쉰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3년 뒤에 출간한 두번째 소설집은 40대 중반에 이른 그의 고뇌와 '방황'이 드러난다. 세 번째 소설집은 옛날이야기를 '새롭게 쓴 것'이다. '새롭게 썼다'는 재해석하고 재평가했다는 말이다. 루쉰은 코믹화를 그리듯이 중국 신화전설 속의 영웅과 성현들을 불러내되, 그들의 '위대성'과 '도덕성'을 가차 없이 벗겨내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였다. 《고사신편》은 1936년 10월 19일 그가 사망한, 그 해 1월에 발간된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서정건 부단장의 '글로벌 인재 키우는 연수·봉사' ≫6면

시선

사설

명백한 표절에도 '면죄부' 근간부터 흔들린 '연구윤리'

'법'이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살아감에 있어 해당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행위규범을 '강제력' 아래 묶어둔 것이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이고 암묵적인 합의 아래 형성된 강력한 권위를 위임받고 있으며, 구성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의 '권위'가 법의 지배원칙을 지지한다. 법과 인접한 개념인 '도덕' 역시 행위규범이지만, 그 위반이 윤리적 비난을 초래할 뿐 강제력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은 법보다 큰 범주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환언하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이 지니는 강제력은 사회구성원에게 위협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의 예기(豫期)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항상성을 지니는 법의 강제력 앞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특정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개인의 예기는 일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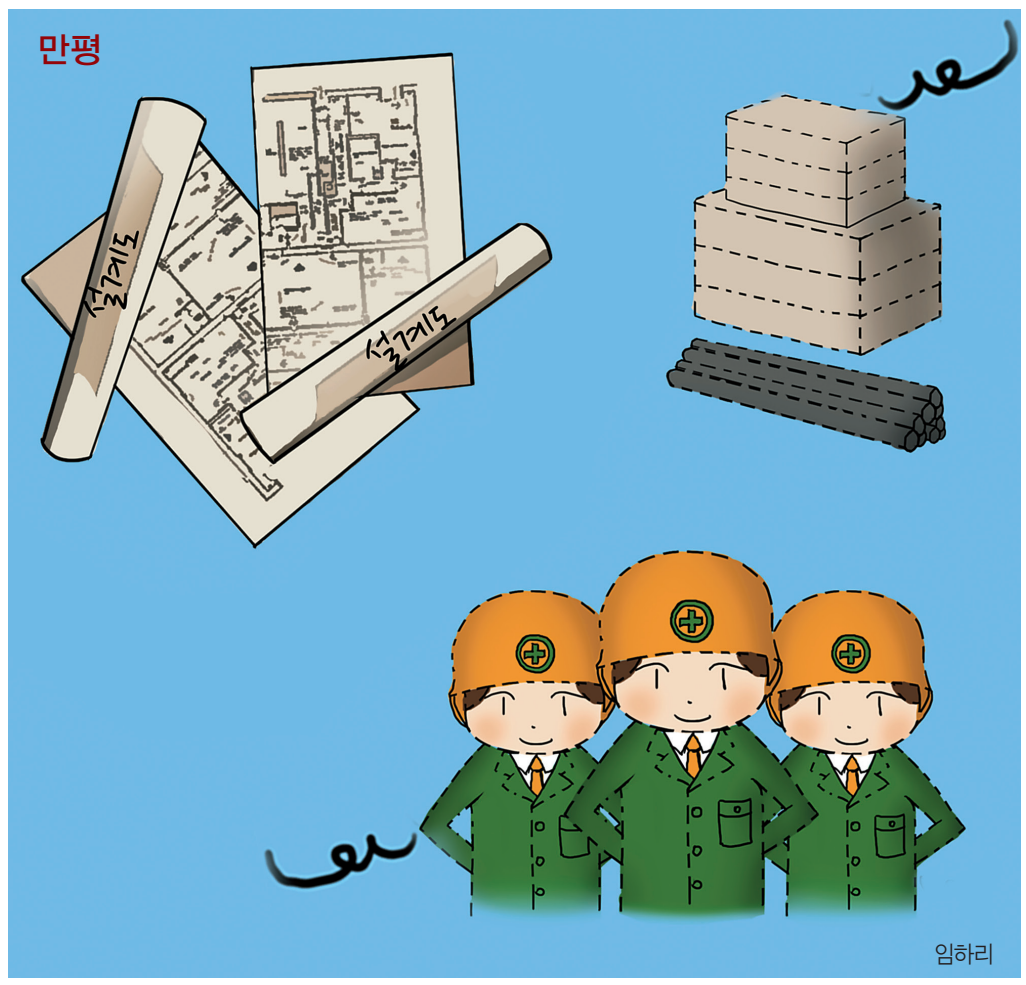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문제를 둘러싼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결과가 큰 우려를 낳는 것은, 이번 판정이 이러한 '법'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표절'이라고 확인된 논문에 대해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우리학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용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정은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이번 판정은 연구윤리문제에 대한 작금의 시대적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다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공소시효 5년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표절 건에 대해 학계 전반이 '현존하는 모든 논문이 검증대상'이라는 수준으로 큰 경각심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이고 암묵적인 합의' 지점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이번 판정은 '경희대학교 연구윤리관리 규정'의 대내외적 권위와 신뢰성을 크게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통해 연구윤리 관련 학내 질서는 그 근간부터 흔들릴 위험에 처해지게 됐다. 명백한 표절 건에 대한 '강제력의 항상성'에 예외 사례를 둠으로써 '경희대학교 연구윤리관리 규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신뢰성에 큰 흠결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내보낸 '신호', 즉, '현존하지 않는 규정, 즉 현행 규정의 허점에 대한 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응답을 불러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를 잃은 법이 더 이상 법의 지배원칙을 지지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윤리는 이제 어디로 흐르게 될까. 이번 문제는 이제 판정결과 그 자체보다는 '판정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일이 됐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경희교육포럼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교 발전을 위해 이상 아닌 현실 직시할 때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이번 교육포럼을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은 고개를 주억거리게 할 것들이었다. '교육과 연구가 상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영감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등등. 모두 이뤄지기만 한다면 우리학교가 '문화세계의 창조'를 주도하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솔깃한 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아직 냉혹하다. 야심차게 내놓은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취업률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비전에 대해 얘기해왔음에도 '문화세계의 창조'가 아직까지 먼 얘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하기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꽤 많이 마련해왔다. 가장 뜨거운 화두인 후마에 대해서는 간담회, 만족도 조사,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다. 교육역량 전반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포럼을 비롯해 미래리포트 출범, 총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에 비례해 학교의 발전방향에 관해 구성원들이 제시한 방안도 많이 등장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번 교육포럼에서는 '제도'란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해,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열린 후마 간담회에서도 교양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이, 총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가지각색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면서도 그 해결책은 '제도적 지원'으로 귀결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어떤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건드리는 순간 '예산'이 요구된다. 각종 대화테이블에서 제시된 안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될 것이다. 모두가 알고있다시피, 학교는 현 행정을 진행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각자가 주장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인지까지 고민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학교 발전방향 논의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들이 쏟아지면 본래 목적이 흐릿해질 수 있다. 때로는 이상을 포기하더라도 목적 실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의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교수단체 대표 선출과정 '신뢰'·'정당성'에 의문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대학주보 편집장으로 일하다보면 종종 곤란할 때가 있다. 경희대라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중에서도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도 다양하지만, 둘 모두 근거가 타당한 경우,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면 어렵지 않겠으나 그것이 대학주보가 추구해온 사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더 곤란할 때가 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다. 심지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구성원을 대표해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주요 주체 중 하나라면 한숨부터 나온다. 가령, 이번 교수대표 선출과정이 그런 경우다. 교수의회는 이번에 의장을 겸임하는 국제지회 지회장에 대한 찬반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입후보자를 모두 무투표 당선 공고했다. '무투표'라니 아연하다. 교수의회 측에서는 '관행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임원이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무투표 당선시킨다'라고 설명했으나, 다른 학내 대표자 임원선거가 단선일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서울캠퍼스 교수의회도 매한가지다. 현재 그 독립절차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한다고 말하면서 치른 신임의장 선거를 '이메일 회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릇 '전자투표'는 선거인 본인 인증 및 보안성 문제에 대해 철두철미한 장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선출과정에서 도입된 전자투표 역시 매우 엄정한 과정 속에 진행됐다. 이럴진대, 본인 인증시스템이나 객관적인 보안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이메일 회신 투표시스템'을 과연 '전자투표'라는 이름 하에 공적 시스템으로 용인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투표기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좀체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3. 대표자의 힘은 그가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신뢰'와 선출 절차의 '정당성'에서 비롯한다. 이번 선거는 과연 이 두 가지를 획득하기에 적합했는지 궁금하다. 이는 교수사회의 오롯한 권리인 만큼 교수들이 고민할 몫으로 남겨두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교수 대표가 다른 구성원 대표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까지 감추기 어렵다. 교직원 노동조합 선거에서 마지막 개표 순간까지 절차의 정당성을 치열하게 토론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그리고 공정 감시단까지 운영해가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선거를 지켜본, 더불어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선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4. 교수사회가 과열된 갈등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늘 강조해온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들의 날선 '지성'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수호한다던, 그 기본을 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길을 향하는 시작은 스스로를 '정립'하는 것부터다.

'대학·학과' 선호도 조사 학생 8위, 학부모 9위 '취업률' 영향 크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4. 11. 24 ~ 11.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온라인 강의 들어보신 분 학점 받기 어렵나요?'(2014. 11. 24)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처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며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강의가 학점 받기가 수월한지 질문했다. 댓글로 "출석과 과제를 완벽하게 했는데 C+가 나왔다며 Pass/Fail 과목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국제경영학회는 제28대 회장으로 우리학교 문병준(경영학) 교수를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국제경영학회 새 회장에 문병준 경희대 교수/연합뉴스, 2014. 11. 24) 한국국제경영학회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 경영 사례를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로 지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6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문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석사,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국제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마케팅과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내일신문이 진행한 세대 간 대학·학과 선호도 조사 결과 우리학교가 학생 선호도는 8위, 학부모 선호도는 9위를 기록했다.(5위 이하 대학 선호도도 달라/내일신문, 2014. 11. 26) 성적, 전공과 상관없이 20개 대학을 놓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로 학생 중 11.9%, 학부모 중 11.5%가 우리학교를 '선호한다'고 선택했다. 학생이 우리학교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순이었고, 학부모의 경우 상위 4개 대학은 동일했으나 이후 서강대, 한양대, 카이스트, 중앙대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학생들은 '취업률(37.4%)'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의사(66.5%)'에 이어 '취업률(20.0%)'을 선택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취업률'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동성제약이 지난 25일 제17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송음 의약학상, 김동현 경희대 교수 피터 로스차일드 바이오가이아 대표이사 수상/쿠키뉴스, 2014. 11. 26) 수상자로는 우리학교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소화관 미생물과 노화, 비만, 대장염 등의 질병을 주로 연구해왔으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 448건, 저서 20편으로 꾸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소화관 미생물과 관련된 효소의 산업적 응용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송음 의약학상은 동성제약이 의약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약학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상이다. 수상 범위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로 넓혀가고 있어 세계 의약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16회까지 국내외 총 37명이 상을 받았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교육브랜드 구축에 성장하는 인재상 더해야"

경희교육포럼 이모저모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경희교육포럼'이 지난 11월 26일 청운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ACE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학교의 교육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 왔는지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는 사회학과 박희제 교수의 '대학의 목표와 경희교육'에 관한 발표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교육, 연구, 사회봉사 세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좋은 대학이 훌륭한 대학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교수들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연구에 치우친 대학의 역할
교육 · 사회봉사까지 아울러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박 교수는 "우리학교는 앞서 말한 세 가지 모두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교육과 연구가 상충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융합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가 '경희융합교육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발표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융합에 대한 고민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허 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 간 융합프로그램 트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교과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배우는 지식이 하나의 주제로 묶이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융합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부 프로그램인 '구성원이 바라보는 경희교육' 라운드테이블도 이어졌다.

사회학과 김중백 교수는 '경희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는 경희정신에 잘 부합하며 인정을 받고 있지만, 평판에 비해 낮은 취업률은 경희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취업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창조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보제공 위주의 교육보다는 본인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진로교육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전자 · 전파공학과 백운식 교수는 '원로교수가 바라본 경희교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교수가 교육프로그램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해 현 경희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공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고 학생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을 강조했다.

이어 '신진교수가 바라본 경희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지리학과 지상현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과 지식을 잇는 이른바 '메타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생각하는 방법,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학생들은 각종 대학평가나 취업이라는 현실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이미지 영향력 크다"
교육브랜드 재정립도 역설

또 지 교수는 "대학의 '교육브랜드'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가지는 이미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다. 현재 우리학교가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브랜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인재상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브랜드 재정립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밝혔다.

3개 학과 신설…'대학구조개혁'과는 무관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3개 학과가 신설된다. 해당 학과는 정경대학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와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로 각각 50명, 40명, 30명을 선발한다. 다만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의 정원 내 선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무역학과 정원이 1명 감소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정원조정은 없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만큼 학과 운영 역시 다른 학부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부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산업체 재직자임을 감안해 야간/주말반, 별도반(온라인·오프라인 강의 혼합 등)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학과 신설 소식에 일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것이라는 소문도 나왔지만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정책원 측은 "이번 학과 개설은 입학전형 신설에 따른 것으로 대학구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새벽', 한시간 동안 무단횡단 100명

국제캠 정문 앞 무단횡단 심각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국제】 지난달 19일 영통동 일대에서 우리학교 여학생 2명이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학생은 새벽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를 받아 정상 주행하던 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학생은 경상에 그쳤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 한 주 동안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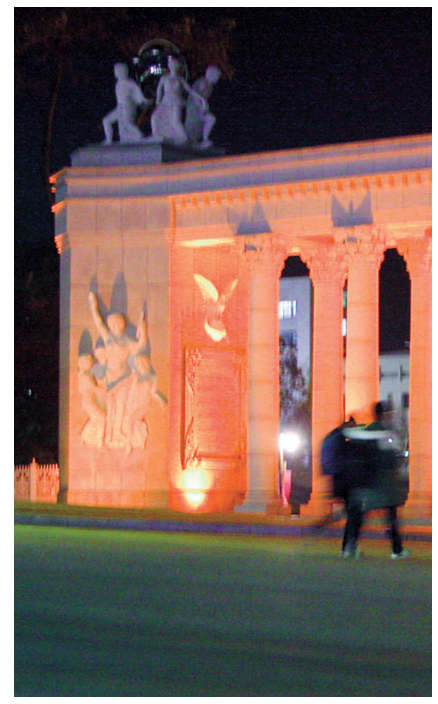
국제캠퍼스 정문 앞 도로의 신호위반과 무단횡단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다. 특히 정문 앞 새벽의 8차선 도로는 위험천만하다. 지난달 29일 새벽 3시, 실제 한 시간 가량 조사한 결과 무단횡단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었다. 정문 양쪽으로는 지하도와 횡단보도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새벽에 지나가는 차가 없고 돌아가기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늦은 시각에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 학생들은 더욱 쉽게 무단횡단을 시도하게 된다. 무단 횡단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버스나 택시 등은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어 속력을 높여 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측은 정문 앞 도로에 대해 "길이 넓고 워낙 위험한 길이다"라며 "무단횡단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거점 근무를 통해 정문 앞에서 단속을 한다"며 "이때 무단횡단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횡단 중 발생한 사고 전체 중 64.9%가 무단횡단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사고 중 새벽 4~6시의 점유율이 5.1%로 가장 높고, 0~2시, 6~8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야간 보행자 음주보행, 무단횡단 등이 지적됐다.

야간 교통법규준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하도와 횡단보도 이용이 요구된다. 영통지구대 측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결국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서울]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주관학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교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언어구분	비고
경영대	전공기초	MGMT100149	경영통계학	서상윤	2교시	13:00–15:45	65	오212		
		MGMT100349	책임경영	안치용	1교시	09:00–11:45	65	오212		
		ACCT100149	회계원리	안성희	1교시	09:00–11:45	100	오213		
	전공필수	MGMT200149	경영정보시스템	진정숙	2교시	13:00–15:45	65	오211		
		MGMT200249	마케팅원론	이홍연	1교시	09:00–11:45	65	오210		
		MGMT200449	재무관리	Maria Kim	1교시	09:00–11:45	65	오211	영어강의	
		MGMT200549	조직행동론	이명신	2교시	13:00–15:45	65	오210		
		ACCT100249	관리회계1	나형종	2교시	13:00–15:45	100	오213		
문과대	전공기초	KL100149	국어학개론	호정은	2교시	13:00–15:45	60	문308		
생활대	전공기초	HE100149	인간과생활환경	채혜원	2교시	13:00–15:45	30	생402		
이과대	전공기초	MATH110149	미적분학및연습1	김세구	2교시	13:00–17:50	35	이서502		기간강의(기간: 1/5~1/14)
				송경우						기간강의(기간:12/22~1/2)
		MATH110249	미적분학및연습2	박창훈	1교시	08:00–12:50	35	이서505		
		PHYS110249	물리학및실험2	여승준	2교시	13:00–15:45	20	문309		팀티칭
				강승훈	1교시	10:00–11:50		문301		팀티칭
		PHYS110250	물리학및실험2	안정선	1교시	13:00–15:45	20	문402	부분영어	팀티칭
				김지훈	2교시	16:00–17:50		문301		팀티칭
		BIOL110249	생물학및실험2	정명숙	1교시	08:00–10:45	24	문309		팀티칭
				최은주	2교시	11:00–12:50		이동403		팀티칭
				서태웅	2교시	11:00–12:50		이동403		
	전공선택	GEOG404049	세계지역의이해	다나카 유키야	1교시	09:00–11:45	60	이동801	부분영어	
		GEOG201149	토양지리학	김송현	2교시	13:00–15:45	60	이동801		
정경대	전공기초	ECON100149	경제학원론	김정숙	1교시	09:00–11:45	50	정304	부분영어	
		ECON100349	경제수학	유종순	1교시	09:00–11:45	40	정303		
		ECON100449	경제통계학	유종순	2교시	13:00–15:45	40	정303		
	전공필수	TRADE200449	국제경제론	배경원	2교시	13:00–15:45	50	정304		
		PSC303449	정치학방법론	이재묵	2교시	13:00–15:45	40	정302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GEC1101S49	우리가사는세계	정의진	1교시	09:00–11:45	45	청202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GEC1101S50	우리가사는세계	정순국	2교시	13:00–15:45	45	청202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기초교과	GEB1101S49	글쓰기1	차선일	1교시	09:00–11:45	25	청302		
		GEB1101S50	글쓰기1	추선진	1교시	09:00–11:45	25	청303		
		GEB1101S51	글쓰기1	권오희	2교시	13:00–15:45	25	청302		
		GEB1102S49	글쓰기2	호정은	1교시	09:00–11:45	25	청304		
		GEB1102S50	글쓰기2	정은기	2교시	13:00–15:45	25	청303		
		GEB1102S51	글쓰기2	구봉곤	2교시	13:00–15:45	25	청304		
		GEB1201S49	영어1	Joseph Faraci	1교시	09:00–11:45	36	청402		Basic

주관학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교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비고
후마니타스칼리지	기초교과	GEB1201S50	영어1	Bryan Cheron	2교시	13:00–15:45	36	청402	Basic
		GEB1201S51	영어1	Robert Poirier	1교시	09:00–11:45	36	청403	Intermediate
		GEB1201S52	영어1	Exan Desforges	2교시	13:00–15:45	36	청403	Intermediate
		GEB1202S49	영어2	Jordan Davidson	1교시	09:00–11:45	32	청502	Basic
		GEB1202S50	영어2	Stephen Mangan	2교시	13:00–15:45	32	청502	Basic
		GEB1202S51	영어2	Gregory Napp	1교시	09:00–11:45	32	청503	Intermediate
		GEB1202S52	영어2	Shelley Price–Jones	2교시	13:00–15:45	32	청503	Intermediate
		GEB1301S49	시민교육	이관후	2교시	13:00–15:45	37	청404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GEB1301S50	시민교육	우대식	2교시	13:00–15:45	37	청504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배분이수교과(1영역)	GED1112S49	섹스란무엇인가: 공생적진화론의성이야기	정훈	1교시	09:00–11:45	60	청301	
	배분이수교과(2영역)	GED1208S49	불편한진실:기후변화	이원	2교시	13:00–15:45	60	청301	
		GED1228S49	위기의생태계와미래	구경아	2교시	13:00–15:45	60	청305	
	배분이수교과(3영역)	GED1308S49	동서양예술의흔융사	배현진	2교시	13:00–15:45	60	청306	
		GED1424S49	소수자문화	김희윤	2교시	13:00–15:45	60	청308	
	배분이수교과(4영역)	GED1435S49	정치학적 사유의 원리	정복철	2교시	13:00–15:45	60	청201	
	배분이수교과(5영역)	GED1510S49	동양사상의뿌리:유,불,도	이은영	2교시	13:00–15:45	60	청309	
	배분이수교과(6영역)	GED1601S49	20세기한국사:식민화와 냉전체제의한국사	성보용	1교시	09:00–11:45	60	청712	
		GED1621S49	영토의경계와흔적이민,이주,이동	이선이	2교시	13:00–15:45	60	청712	
		GED1630S49	기후와역사	이준호	1교시	09:00–11:45	60	청305	
	배분이수교과(7영역)	GED1703S49	비판적사고란무엇인가	박근재	1교시	09:00–11:45	60	청201	
		GED1704S49	사고와논리:개념,명제,논증	송대현	2교시	13:00–15:45	60	청307	
	자유이수교과(기타)	GEE1113S49	공감의대화술:갈등조정의기술	신은혜	2교시	13:00–15:45	48	청203	
		GEE1191S49	약과건강	정성현			100		온라인강의
		GEE1157S49	부동산학개론	이성근	1교시	09:00–11:45	60	청409	
	자유이수교과(체육)	GEE1601S50	골프	이상민	1교시	10:00–11:50	30	청운관(골프장)	
		GEE1615S49	배드민턴	강창균	1교시	10:00–11:50	30	네오관(농구장)	
		GEE1638S49	조깅과 워킹	홍대석	1교시	10:00–11:50	30	청운관(헬스장)	
		GEE1657S49	현대생활과 체육	손흥기	2교시	13:00–14:50	60	청409	
		GEE1650S49	토탈컨디셔닝(체력및몸매관리)	이재복	2교시	13:00–14:50	30	청운관(헬스장)	
		GEE1611S49	동계스포츠:스키	고인태	집중이수		30	스키장	집중이수
		GEE1609S49	동계스포츠:스노우보드	김태형	집중이수		30	스키장	집중이수
	자유이수교과(예술)	GEE1737S49	영화속그림읽기	이현민	1교시	09:00–11:45	60	청205	
		GEE1718S49	매체와현대예술	박영균	2교시	13:00–15:45	60	청205	
	강좌 수		64						

후마니타스칼리지

12월 첫째 주(12.1~12.5)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 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AIA생명 NEXT AIA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 – 서울 상경 6년 만에 강남을 평정한 31세 원주촌놈의 세일즈 노하우 – 꿈을 현실로 만든 마법의 스케줄관리 노하우 – What Is The Best Job?	NEXT AIA & 취업특강	12.2(화) 16: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PCA생명 SEP 채용면담	SEP	12.3(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삼성생명 SPF 채용면담	SPF	12.3(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삼성생명 SPF 채용설명회	SPF	12.3(수) 15: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한국무역협회아카데미 SMART Cloud 마스터 과정설명회	해외(일본) 취업지원 장기 교육과정	12.4(목) 16: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상담	이종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서울캠 단과대학 대표 선출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특히 3파전이었던 무용학부와 경선을 치른 정경대학의 경우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등은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내년 3월로 연기됐고, 경영대학은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율이 45.3%에 그쳐 선거가 무산됐다. 현재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최초 선거기간에 입후보자가 없어, 재선거공고를 진행했고 지난 28일 각각 1개 선본이 등록해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자 명단

간호과학대학
투표율 52.9% 득표율 86.5%
정 : 김민정(간호학 2013)
부 : 서예진(간호학 2013)

무용학부
투표율 88.1% 득표율 64.1%
정 : 세키미찌요(한국무용 2013)
부 : 백수연(현대무용 2013)

미술대학
투표율 71.4% 득표율 88.8%
정 : 단재민(회화 2010)
부 : 맹도영(조소 2010)

음악대학
투표율 70.7% 득표율 89.3%
정 : 라재혁(작곡 2012)
부 : 박병선(기악 2011)

이과대학
투표율 63.9% 득표율 86.3%
정 : 김준용(정보디스플레이학 2010)
부 : 정유진(수학 2013)

약학대학
투표율 61.3% 득표율 67.9%
정 : 박건하(한약학 2013)
부 : 기민성(약과학 2011)

정경대학
투표율 60.4% 득표율 50.64%
정 :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부 : 정대성(사회학 2009)

호텔관광대학
투표율 58.6% 득표율 85.8%
정 : 이건영(조리·서비스경영학 2013)
부 : 최지선(외식경영학 2013)

※단과대학별 투표권자와 개표요건 등 선거 시행세칙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복되는 생협 설립· SPACE21 공약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국제캠 총학 공약 분석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생회(총학)선거 덕분에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선거운동 열기로 가득 차 있다. 두 선본 모두 투표권자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다. 수강신청 개선·취업프로그램 확대는 두 선본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특기할 만한 공약으로는 'Klass Up' 선본의 '생활협동조합 설립추진' 공약과 '친 KHU' 선본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에 대한 총투표 실시' 공약을 들 수 있다. 우리신문은 선거철을 맞아 각 선본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짚어봤다.

양 선본 모두 올해의 긴축재정 여파로 축소된 문화탐방·기행 등 학내 프로그램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각 선본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은 판이했다. 'Klass Up' 선본은 '총장배 학술공모전 진행', '기업 지자체 주관 외부 프로그램 학내 섭외' 등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기존의 학교 정책이 학사제도에 편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친 KHU' 선본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추진' 등과 같은 평소 학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lass Up' 지자체 연계로 재정확충, '학내 재정 감안' 현실성 ↑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Klass Up' 선본은 각각 '취업프로그램 전공별 운영', '전공별 졸업생 멘토링' 등을 제시했고 '친 KHU' 선본은 '자소서 첨삭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면접 클리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업진로지원처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양 선본 모두 희망과목담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희망과목담기제도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수강수요가 강의 개설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lass Up' 선본은 '희망과목담기 수요 강의 개선 현실화'를 제시하는 한편, 줄어든 교양수업 과목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는 사안과,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과목 등의 수강신청 실패 시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친 KHU'선본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과 학교 측이 대화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 학교 측과 함께 수강신청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일반론적 공약을 내세웠다.

'친 KHU' 한대련 탈퇴 투표 실시 "구성원 의사 물은 뒤 결정하겠다"

'Klass Up' 선본은 장학 제도와 관련해 장학금 정보 통합관리, 성적장학금 기준제시,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금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놨고, '친 KHU' 선본은 비단 성적순으로 받는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을 도입·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선본의 장학금 관련 공약은 현실에 비춰 크게 유의미하지는 못한 형편이다. 먼저 'Klass Up' 선본이 내세운 공약의 경우, 현재 장학금 정보는 장학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통합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또 대부분의 성적장학금의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성적 순위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기준제시'라는 공약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Klass Up' 선본과 '친 KHU' 선본이 유사하게 내놓은 '장학금 신설 및 확충'안의 경우엔 두 선본 모두 수혜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는 등 디테일에서의 한계점이 눈에 띈다. 양 선본이 장학금 관련 공약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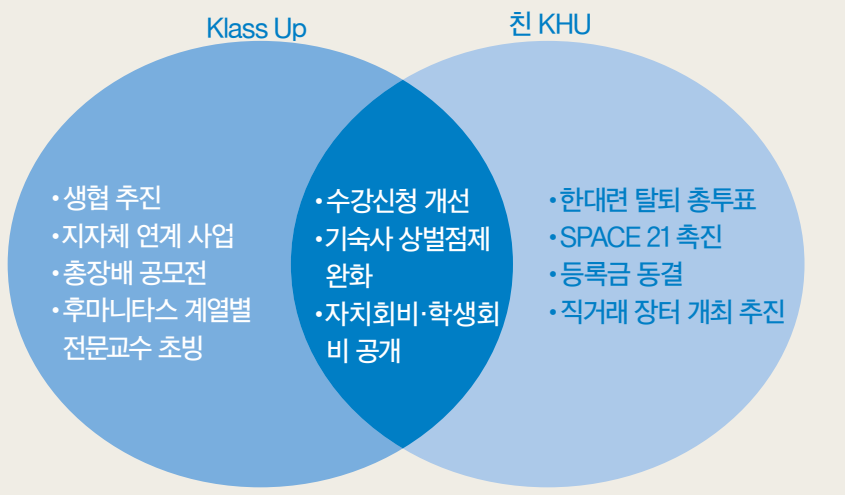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Klass Up' 선본은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 주관 프로그램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학내 재정 악화문제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가운데 나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친 KHU'선본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장학금 제도의 재정비· 행사비용 축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보가 기대되는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다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lass Up' 선본은 국제캠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생활협동조합(생협)설립' 공약을 재등장시켰다. '생협 설립'은 앞서 당선된 제2011, 2013, 2014년도 총학 역시 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으나 잇따른 공약 이행 실패로 설립되지 못했다. 생협 설립은 그동안 출자금을 마련하는 문제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전망 등의 여러 난제가 얽혀 좌초돼온 안건인 만큼, 이번의 공약이 이전의 전철을 밟는 구호성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면밀하고 세심한 준비와 논의가 추가되어야할 전망이다.

한편 '친 KHU' 선본은 '21C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탈퇴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공약을 내세웠다. 그 동안 44대 총학 정용필(기계공학 2006) · 45대 김나래(기계공학 2008) 회장이 제 8대·9대 한대련 의장을 맡을 정도로 총학은 한대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따라서 이 같은 공약은 기존의 운동권이 학내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생들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친 KHU'선본은 "무조건 적인 탈퇴선언이 아닌 '총 투표'를 통한 학생 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본 뒤에 한대련 탈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또 SPACE21사업에 대해 '친 KHU'선본은 '학생, 교수, 대학본부와의 빠른 협의 진행'을 통해 SPACE21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차 SPACE21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논의는 일단락이 된 상태인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캠 주요 공약 비교〉



〈최근 반복 등장하는 주요 공약〉

2011 선거	2012 선거	2013 선거
• 반값등록금	• 등록금 인하	• 수강신청 제도 개선
• SPACE21(캠퍼스종합개발) 착수	• 학사제도 개편	• SPACE21 연내착공
• 장학금 가이드북 배포	• 생협 설립	• 생협 설립
		• 강의 대여 시스템 개설

[국제]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영어강	비고
응용과학대학	전공기초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반기 : 김경수	1교시	09:00~11:45	57	전221		2014/12/22~2015/01/02
				후반기 : 배재현				멀304		2015/01/05~2015/01/14
		AMTH1001-02	미분방정식	전반기 : 강 곤	1교시	09:00~11:45	57	전223		2014/12/22~2015/01/02
				후반기 : 김현미				전223		2015/01/05~2015/01/14
		AMTH1002-01	미분적분학1	전반기 : 홍범일	1교시	09:00~11:45	46	전101		2014/12/22~2015/01/02
				후반기 : 최진혁				멀107		2015/01/05~2015/01/14
		AMTH1002-02	미분적분학1	전반기 : 안일주	2교시	13:00~15:45	46	전101		2014/12/22~2015/01/02
				후반기 : 김현수				전101		2015/01/05~2015/01/14
		AMTH1003-01	미분적분학2	전반기 : 김도윤	1교시	09:00~11:45	46	전102		2014/12/22~2015/01/02
				후반기 : 박지면				전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2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차준심	1교시	09:00~11:45	46	전103		2014/12/22~2015/01/02
				후반기 : 박기섭				전103		2015/01/05~2015/01/14
		AMTH1003-03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신인숙	2교시	13:00~15:45	46	전102		2014/12/22~2015/01/02
				후반기 : 박정주				전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4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이영수	2교시	13:00~15:45	46	전103		2014/12/22~2015/01/02
				후반기 : 최상아				전103		2015/01/05~2015/01/14
		AMTH1004-01	선형대수	전반기 : 한창용	1교시	09:00~11:45	44	전217		2014/12/22~2015/01/02
				후반기 : 남궁윤미				전217		2015/01/05~2015/01/14
		APHY1001-01	물리학2	이석준	1교시	09:00~11:45	60	멀408		
		APHY1003-01	물리학및실험2 (이론)	김선경	1교시	09:00~10:50	30	멀407		
			물리학및실험2 (실험)	김선경	2교시	11:00~12:50	30	멀405		
		APHY1003-02	물리학및실험2 (이론)	김선경	1교시	09:00~10:50	30	멀407		
			물리학및실험2 (실험)	김선경	2교시	11:00~12:50	30	멀406		
		APHY1003-03	물리학및실험2 (이론)	송현욱	1교시	13:00~14:50	30	멀407		
			물리학및실험2 (실험)	송현욱	2교시	15:00~16:50	30	멀405		
		APHY1003-04	물리학및실험2 (이론)	송현욱	1교시	13:00~14:50	30	멀407		
			물리학및실험2 (실험)	송현욱	2교시	15:00~16:50	30	멀406		
		APHY1004-01	일반물리	김동학	1교시	09:00~11:45	60	멀311		
		APCH1102-01	화학및실험2 (이론)	이성열	1교시	09:00~10:50	30	공146		
			화학및실험2 (실험)	이성열	2교시	11:00~12:50	30	멀310		
		APCH1131-01	일반화학	오세한	2교시	13:00~15:45	60	멀408		
생명과학대학	전공기초	BIO103-01	일반생물	김세영	1교시	09:00~11:45	50	생119	영어강의	
공과대학	전공기초	ME205-01	공학프로그래밍입문	이호진	2교시	13:00~15:45	40	멀203		
		NE206-01	공학수학2	박성준	1교시	09:00~11:45	40	공367		
전자정보대학	전공필수	CSE102-G01	프로그래밍기초	이승형	1교시	09:00~12:50	40	전B07		
		CSE202-G01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한용규	2교시	13:00~16:50	40	전B09		
		CSE203-G01	컴퓨터구조	김명안	2교시	13:00~15:45	40	전B06		부전공(SCSC트랙) 이수자만 수강가능, 전정 재학생 수강불가
	전공선택	CSE329-G01	JAVA프로그래밍	Asad Masood Khattak	1교시	09:00~12:50	40	전B11	영어강의	
		CSE222-G01	콘텐츠제작과웹프로그래밍	나상호	1교시	09:00~11:45	40	전B06		부전공(SCSC트랙) 이수자만 수강가능, 전정 재학생 수강불가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GEC1101-G01	우리가사는세계	양윤희	1교시	09:00~11:45	40	멀409		2014학번 수강불가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영어강	비고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GEC1101-G02	우리가사는세계	신혜영	2교시	13:00~15:45	40	멀409		2014학번 수강불가
	기초교과	GEB1101-G01	글쓰기1	김윤희	1교시	09:00~11:45	27	멀206		
		GEB1101-G02	글쓰기1	권기성	1교시	09:00~11:45	27	멀207		
		GEB1101-G03	글쓰기1	오태호	2교시	13:00~15:45	27	멀206		
		GEB1102-G01	글쓰기2	박지웅	1교시	09:00~11:45	27	멀208		
		GEB1102-G02	글쓰기2	최윤희	2교시	13:00~15:45	27	멀207		
		GEB1102-G03	글쓰기2	유재명	2교시	13:00~15:45	27	멀208		
		GEB1201-G01	영어1	Armando Daniel Bazan	1교시	09:00~11:45	35	멀102	영어강의	
		GEB1201-G02	영어1	Craig Lawrence Rueter	2교시	13:00~15:45	35	멀102	영어강의	
		GEB1201-G03	영어1	이혜란	–	–	35	–	영어강의	온라인강의
		GEB1202-G01	영어2	Brown Hyon Chol	1교시	09:00~11:45	35	멀205	영어강의	
		GEB1202-G02	영어2	Liet Hoan Hau	1교시	09:00~11:45	35	멀610	영어강의	
		GEB1202-G03	영어2	Sheridene Barbara Oersen	1교시	09:00~11:45	35	멀611	영어강의	
		GEB1202-G04	영어2	Brian Daniel Arundel	2교시	13:00~15:45	35	멀610	영어강의	
		GEB1202-G05	영어2	Hue Joshua Lee	2교시	13:00~15:45	35	멀611	영어강의	
	배분이수교과 (생명몸,공생체계)	GED1115-G01	운동과체중관리	김경애	2교시	13:00~15:45	60	멀210		
	배분이수교과 (자연,우주물질,기술)	GED1211-G01	숲의치유	신미란	2교시	13:00~15:45	60	멀112		
	배분이수교과 (의미,상징,공감)	GED1325-G01	인문학과문화콘텐츠	김기국	1교시	09:00~11:45	60	멀210		
		GED1331-G01	호모심볼리쿠스:인간의상징행위	온영철	2교시	13:00~15:45	60	멀612		
	배분이수교과 (사회,공동체,국가,시장)	GED1408-G01	공학과경영	김명섭	1교시	09:00~11:45	50	멀609		
		GED1408-G02	공학과경영	권문택	2교시	13:00~15:45	50	멀609		
		GED1435-G01	정치학적사유의원리	임형진	1교시	09:00~11:45	60	멀608		
	배분이수교과 (평화,비폭력,윤리)	GED1504-G01	공학과윤리	예철해	1교시	09:00~11:45	50	멀302		
		GED1508-G01	동아시아문명론	오일환	2교시	13:00~15:45	50	멀608		
	배분이수교과 (역사,문화,소통)	GED1621-G01	영토의경계와혼작이민,이주이동	곽봉재	2교시	13:00~15:45	60	멀602		
		GED1641-G01	차문화의과학과미학	이인선	2교시	13:00~15:45	60	멀302		
	배분이수교과 (논리,분석,수량세계)	GED1703-G01	비판적사고란무엇인가	서광열	1교시	09:00~11:45	60	멀312		
		GED1712-G01	정량적추론분석	김정현	2교시	13:00~15:45	60	멀204		
		GED1713-G01	제논의역설에서카오스이론까지: 무한과유한의변증법	최진혁	2교시	13:00~15:45	50	멀311		
	자유이수교과	GEE1192-G01	언어와문학의이해	이혜란	–	–	100	–	영어강의	온라인강의
		GEE1223-G01	일본현대소설읽기	김활란	1교시	09:00~11:45	60	멀602		
		GEE1275-G01	한방과건강생활	길재호	–	–	100	–		온라인강의
		GEE1287-G01	후마니타스특강1	이영식	–	–	170	–		온라인강의
		GEE1519-G01	한자의이해	노상균	–	–	60	–		온라인강의 /시험:오프라인
		GEE1717-G01	디지털사진촬영기법	이재용	2교시	13:00~15:45	60	멀411		
		GEE1725-G01	색채와상상력	이지은	2교시	13:00~15:45	60	멀312		
	강좌 수	57								

후마니타스칼리지

2014' 취업진로지원처 이종구 교수님의 WINTER SPECIAL LECTURE!!!

거기~ 학생~ 마지막 방학도 의미 없이 보낼 거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취업스쿨 이종구 교수님의
'방학 알차게 보내기' 특강!!!
4학년 겨울시즌 핵심경력관리 비법~!!
겨울에 춥다고 집에만 있을 것 같으면 드루와~ 드루와~

1.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목) 14:00~16:00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2. 자격요건
- 경희대학교 학부 4학년생 및 졸업생

3. 학생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내 JAST 검사)
- 설문지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대상 : 재적생(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생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연수신청]에서 본 프로그램을 신청(저장)
(신청없이 참석가능합니다)
나. 신청기간: 2014.11.24.(월)~

5.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처 최선규 선생님(02-961-0167)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interveiw

“삼권분립과 같은 견제장치, 중선관위에도 도입해야”

국제캠 중선관위 박인 위원장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4년만의 경선으로 국제캠퍼스(국제캠)가 떠들석하다. 그러나 후보등록 과정 등 선거 운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 선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다. 일련의 사건 중심에는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있다. 선거 운영의 판단 근거와,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 경, 국제캠 경선이 확정됐다. 11월 18일 오후부터 시작된 ‘중선관위 긴급회의’에서 ‘Klass Up’ 선본과 ‘친KHU’ 선본의 이의제기를 검토 후 내린 결정이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멀고도 험했다〈대학주보 제1580호(2014.11.24)〉.

논란의 시작은 Klass Up 선본의 약력서류 이름 오기였다. 중선관위는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잘못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중선관위 과실을 학우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선관위의 과실에 대해 재차 사과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선거과정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선관위가 친KHU 선본을 ‘제출서류 미비’의 사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다음 날 친KHU 선본은 중선관위에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하루아침에 중선관위의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Klass Up 선본은 이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회의를 거치며 오락가락하는 중선관위의 입장에 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중선관위장으로서 회의의 결정사항을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최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선관위 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박 위원장은 “중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모호한 세칙에 대한 해석이 상황마다 달라졌다. 정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KHU 선본의 후보등록문제에 결정적인 판단근거가 됐던 선거세칙 *5장 23조와 관련해서, 세칙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입실 후 2시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든 출입을 금하며 통제한다’는 식으로 수정해 규칙에 모호함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유독 혼란스러웠던 선거였던 까닭에 박 위원장은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관련 전문교육’, ‘중선관위 견제기구’ 등과 같은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국가에는 입법-사법-행정에 이르는 삼권분립 견제 체계가 있다”면서 “학생자치조직에도 권한이 나누어져 각 권한들 간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중선관위에 선거관련 결정 권한이 모조리 집중돼 있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나아가 “‘독립된 선거운영위원들 선출’, ‘일반 학우 선거관리위원 선발’ 등의 방안이 마련 돼야한다”며 “더 ‘넓은’ 회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 신·구 학생회가 향후 있을 선거를 더욱 매끄럽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선거세칙 5장 23조: 등록마감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등록서류 발급하지 않으며, 출입할 수 없다.(단, 등록마감시간 이전에 등록 장소에 입실한 경우 필요한 서류(인쇄용 포스터 파일 제외)를 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출판문화원

서울캠 본관 등록문화재 될까?

서울특별시가 우리학교 본관을 근대건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제안했다. 과거 목조와 현대 콘크리트 사이에 존재하는 ‘석조건물’로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까지 진행한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까지 학교 측은 논의 단계에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내부수리 등의 과정에 승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보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민의 대상이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계장은 “문화재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의회, 김홍두 교수 단독출마…8일 찬반투표
‘서울 교수의회’, 유원준 교수 61.4% 득표율 당선

교수사회 선거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교수의회가 지난 25일 ‘교수의회 15대 의장 및 임원선출 후보자’를 공고한 가운데, 의장(국제지회장 겸직) 후보로 김홍두(정보전자신소재공학) 교수가 단독 출마해 오는 8일부터 4일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밖에 서울지회 지회장, 의학지회 지회장과 감사, 국제지회 감사 등은 각각 입후보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교수의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다. 서울지회 감사의 경우 출마자가 없어 1일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교수의회 독립을 두고 법리해석 문제가 불거진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수의회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신임 의장선거를 진행했다. 선거결과기호 2번 유원준(사학) 후보가 당선됐다. 총 유권자 300명 중 218명이 투표해 7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호 2번 유원준 후보는 134표(61.4%)를 득표해, 75표(34.4%)를 얻은 기호 1번 허경호(언론정보학) 후보를 59표 차로 이겼다. 기권은 9표였다.

〈제15대 교수의회 의장 및 임원 후보자 명단〉

의장(국제지회장겸직) 후보	김홍두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찬반투표 예정]
국제지회 감사 후보	노상균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무투표당선]
서울지회장 후보	송상호 경영대학원 [무투표 당선]
서울지회 감사 후보	후보자 없음. 1일(월) 오후 5시까지 모집기간을 연장
의학지회장 후보	김성민 의과대학 의학과 [무투표당선]
의학지회 감사 후보	전양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무투표당선]

〈교수의회 김홍두 교수 공약〉

총장 선출의 절차의 개방화 투명화
학교재정 파탄의 책임을 교수에게 전가 방지
분열된 교수사회의 친목과 화합 도모
대학재정과 운영의 혁신, 인재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유 당선자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님들이 현 상황에 대해 변화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약속한 대로 잘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캠 교수의회는 선거와 함께 제15대 조인원 총장 신임투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68.8%가 '불신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은 31.2%에 그쳤다.

현재 별도 선거가 진행됐지만 서울캠 교수의회가 교수의회에서 ‘독립’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설립한 단체인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은 “전체 교수의회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차기 의장 역시 ‘교수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만큼 차기의장단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C] 2014-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어학성적 · 자격증 취득, 수상, 봉사한 학생들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19(금) [3주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모자이크인정현황표의 포인트 200,000점 이상자
 (타장학수혜자에게도 장학 지급이 가능하며, 등록금 초과 장학지급 가능)
 – 장학금: 20만원~100만원
2. 모자이크 장학이란? “학생의 역량강화나 사회공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분야	등급별 분류기준	포인트	비고
학업 역량	국제단위 3위 입상 이상	500,000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2014.6.1.~2014.11.30 * 상기 기간 중 취득한 증명서 및 활동내역서 인정 * 외국어/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에 응시 및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전국단위 3위 입상 이상	300,000	
	시,도단위 3위 입상 이상	150,000	
	교내 경진대회 최우수상	100,000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SCIE급 학술지	400,000	
	국내 우수 학술지	150,000	
사회 봉사 역량	해외자원봉사	50,000	
	교내외 자원봉사 10시간	10,000	
	헌혈자(2장)	10,000	
국제화 역량	토익 900점이상 / 토플(IT) 110점이상	200,000	
	토익 800점이상 / 토플(IBT) 100점이상	100,000	
	JLPT N1급 JPT 715 이상	200,000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HSK 6급 이상 / 신 HSK 5급 이상	200,000	
	HSK 5급 / 신 HSK 4급 210 이상	100,000	
	DELF C1 – C2	200,000	
	DELF B2	100,000	
	TORFL–2	200,000	
	TORFL–1	100,000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DELE Dipolma Superior(고급)/FLEX 듣기/읽기 901 이상 및 쓰기/말하기 227 이상	200,000	
	DELE Diploma Intermedio(중급) / FLEX 듣기/읽기 776 이상 및 쓰기/말하기 200 이상	100,000	
	한국어문회 1급	200,000	
	한국어문회 2급	100,000	

※ 기타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단대, 장학팀) 및 단과대학 게시판, 개인 이메일 참조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2014-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 개인역량 조회) 신청 버튼 클릭, 완료(학생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으로 대체)
(* 학생들은 평소에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역량관리 〉 개인역량입력(및 증빙서류 단과대학 제출)을 하며, 단과대학의 인정 처리를 받음.)
4. 관련문의: janghak@khu.ac.kr/ http://janghak.khu.ac.kr, 961-0045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서울C]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국가장학 1차”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4.11.20.(목)~12.8(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2014.12.1.(월)~12.31(수)

1.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
  ·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3. 장학 선발자가 2015-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교내장학금』 신청 1. 2015-1학기 우수장학, 우정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 특정목적을 제외한 모든 장학신청을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으로 통합함. 2. 장학금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장소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해당자 및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 고시합격자(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부 장애학생지원센터 / –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처 장학팀 / –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경희가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신청요망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절차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납입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참고사항	1. 2015-1학기부터 우정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지급함. 2. 장학생 선발기준(우수,모범,밝은사회단대)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3. 교내·외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 (이중수혜시 환수 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 인정) 4.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5. 계속장학생이 2015-1학기에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외의 타장학수혜가 없을 경우에는 2015-1학기 등록을 하지않고 휴학 요망(미등필휴학).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1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2014학년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미래정책원에서는 ‘2014학년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단과대학,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에 대해 구성원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향후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설문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집계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 ~ 2014년 12월 19일이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3명)와 커피쿠폰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희대학교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Tel. 02)961-0020~1

경희대학교 미래정책원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문화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초청작가 박흥일 사진전시회』와 『재능기부 프로그램』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초청작가 프로그램』 박흥일 작가 사진전시회
1. 내 용 : 백두산 및 독도 사진 작품 전시
2. 일 자 : 2014. 12. 1(월) ~ 12. 8(월)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3회 음악회
1. 내 용 :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공연
2. 일 자 : 2014. 12. 2(화) 12:00 ~ 13: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 용 : 중앙사진동아리 파인더 34회 정기 전시
2. 일 자 : 2014. 12. 9(화) ~ 12. 11(목)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 용 : 서수환(도서관) 서예작품 전시
2. 일 자 : 2014. 12. 12(금) ~ 12. 17(수)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예: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칼럼

글로벌 리더의 조건②

‘현장·실천’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전문가 키운다

서정건
정치외교학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각 사업단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 목표를 들어보고자 본다.

연재순서
1회 :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
2회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현장연수와 실천봉사

‘현장 중심, 실천 위주’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국제화 사업을 통해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큰 꿈을 키워 나가는 글로벌 인재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학교의 정치외교학과와 국제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국제화 특성화 사업, 즉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는 기존의 유사한 대학 국제화 시도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장 중심’과 ‘실천 중심’이라는 두 가지 가치와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외형적인 모양새나 수치로 계산되는 국제화 지수에 집착하던 단계는 이미 마감하였으며, 이제는 그야말로 교육과 실천의 연계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problem-solving)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점진적 혹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구촌 사회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대안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시대 이미 마감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우리 경희대학교는 현장중심/실천위주의 국제화 특성화 사업에 적합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이미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대학이 설립 이후 추진해 온 인류, 문명, 평화 등 거대 담론 이외에도 구체적 실천 경로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대학은 향후 본 사업단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실천/현장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국내외적 토대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단순히 국내 차원에서 교육과 실천을 연계해 온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다각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이미 경희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사업단은 이러한 학교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 개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구화 시대의 각종 격차 문제 및 개발 이슈를 해소하고 선도하는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대학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활동들은 지구사회봉사단(GSC), 경희 해피하우스(Kyung Hee Happy House) 등이 있다. GSC는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연계해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나쯔응 마을 농촌 개발모델 개발사업’을 비롯해 연해주, 베트남, 몽골 등 저개발국의 지역공동체 건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다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의 몰래산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희 해피하우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홀몸 어르신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내 실천 프로그램 참여가 인증 프로그램의 중요 활동으로 적극 권장될 것이며, 이는 현장에 기초한 다양한 격차 해소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교의 대표적인 교육-실천 연계 프로그램으로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글로벌 NGO 탐방 등이 있다. 학생들은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으며, 2006년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12년까지 약 63명의 학생들이 UN DESA, UNDP, UN DPI, UN Governance Center, FAO, CONGO, Forum Asia, UN ESCAP, UNESCO, UN PRME, CIVICUS, SEAMEO, Pax Christi International, AICESIS, WHO 등의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한 바 있다. 글로벌 NGO 탐방은 하계 및 동계방학을 활용해 세계 NGO를 탐방하고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다. 전세계 공공기구와 NGO의 활동 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민간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현장을 경험하고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사업단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등에서 수행되는 국제적 교육-실천의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후 현장 경험에 기초한 연구 활동 및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글로벌인재, 지구화 시대의 각종 문제 해소하고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

그리고, 우리 사업단은 참여 학생들의 해외연수와 인턴활동을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정치외교학과에서 주도해 오던 펜실베니아 대학 동계연수 프로그램에 국제대학 학생들도 참여하고, 국제대학에서 진행해 오던 존스 홉킨스 대학, 푸단 대학, 오사카 대학 연수 기회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도 주어진다.

필자가 지도 교수로 참여했던 2014년 펜실베니아 대학 동계 연수 과정의 일례를 통해 교육과 연수, 교실과 현장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학생들을 데리고 워싱턴 소재 미국 국무부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북한인권 대사로 활동하는 로버트 킹 대사의 초청에 의한 자리였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미국의 인권 외교, 그리고 북한의 현실 등 실제로 강의 시간에 토론하였던 주제들을 놓고 바로 핵심 정책 담당자와 워싱턴 한 복판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

현장 중심/실천 위주라는 아이디어와 슬로건이 그저 공염불이나 미사여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확인되고 향후 다시 점검되는 현상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참여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각 분야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인턴 활동들에 대해서도 사업단 예산이 큰 폭으로 지원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 중심, 실천 위주’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국제화 사업을 통해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큰 꿈을 키워 나가는 글로벌 인재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양리포트⑬
[인간의 가치 탐색]

삶의 무게와 그 가치의 탐색, 유학생도 ‘열공’하는 인가탐

홍승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인간의 가치탐색의 교육목표는 학부 1학년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유기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의미를 획득하고 ‘좋은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준다.

“人固有一死, 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 한자(漢字)로 쓴 이 말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언뜻 낯설어 보이지만, 중등교육을 받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촌철살인의 명문이다.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인간의 가치 탐색》의 교재 서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한(漢)나라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의 말이다. 죽음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도대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 온 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은 국적, 민족, 성별을 초월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못한 1학년 유학생들을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별도의 전용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을 유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다.

교재에 실린 동서양의 고전 텍스트들은 대부분 각국의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어서, 유학생들은 모국어 번역을 먼저 찾아 읽고 이해한 후 한국어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서 이해와 사고력의 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교재에 실린 공자·맹자·장자·사마천·루쉰의 글들을 이미 원문으로 독서한 학생들이 많고 그 이해력도 높다.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의 원문을 읽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통한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용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두꺼운 교재는 정답지가 아니라 탐색의 재료들이며, 성찰과 사색의 화두를 던지는 대화집이다. 인생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교재는 기본 재료를 제공할 뿐, 그 재료를 사용해 ‘탁월한’ 요리를 만드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강의의 관건은 그 재료들의 질문방식과 상호 대화에 있다. 수많은 동서양 고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탁월한 대화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오래전 그들이 대답하고자 한 문제들과 사유의 방식, 탐구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스스로 되묻는 시도는 사실 1학년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며, 끝날 수도 없다. 다만 한 학기 동안 평생의 화두로 삼을 만한 질문을 발견한다면, 이 강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존재의 의미는 삶이 나에게 물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내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물음이다. 나는 거기에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단지 세계가 주는 대답에 의지할 뿐이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말처럼, 스스로 질문하는 인간, 성찰하고 탐구하는 인간, 실천하는 인간이 바로 ‘후마니타스’이며, 《인간의 가치 탐색》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서두에서 필자가 인용했던 사마천의 말은 사실 완결된 문장이 아니다. 바로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이어지며 끝을 맺는다. “用之所趨異也.” “그 죽음을 어떤 방향(목적과 의미)으로 사용(선택)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죽음의 무게는 곧 삶의 무게이다.

칼럼

한국사람 만큼 소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은 드물 것 같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소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소나무,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꿰었나요"

우리학교 꽃 이야기(18)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한국사람만큼 소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은 드물 것 같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소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애국가에도 남산의 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나 그림에도 소나무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의 대학자이자 생육신인 김시습이 3살 때 소나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시를 썼다고 한다.

桃紅柳綠三月暮(도홍유록삼월모)
珠貫靑針松葉露(주관청침송엽로)
"복숭아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요 3월도 거의 지나갔어요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꿰었나요 솔잎에 총총 이슬이 맺혔어요 이슬이 반짝 눈물 글썽였어요"

3살의 신동 김시습의 눈으로 본 소나무에는 푸른 바늘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 늘 푸른 나무의 상징인 소나무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우리 민족의 나무인 것이다.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태어나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죽는다는 옛 말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문화에 오랫동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정문부터 학교 곳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중앙도서관 앞에도 큰 소나무가 3그루 이상 심어져 있고, 본관 앞에도 오래 된 소나무가 있다. 선비 정신을 대변하는 나무로써 우리 학교에서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사용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소나무를 생각하면 송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의 은은한 향을 머금은 추석의 먹거리에도 사용되며, 과거에는 소나무의 속껍질을 말렸다가 송기떡을 만들어 구황식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송화가루라고 하여 소나무의 꽃가루를 모아 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방법은 건축물의 재료이다. 몇 년전 복원된 숭례문에 사용된 목재도 소나무인데 소나무 중에 굴곡이 없고 수령이 오래되어 일정한 두께가 있는 소나무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흔히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식물학적으로 금강송은 소나무의 형태적인 차이일 뿐 다른 종은 아니다. 소나무의 진액은 송진이라고 하며 공업용, 약제로도 사용된다. 또한 송진이 돌처럼 굳어지면 호박이라는 보석이 되기도 한다. 한복에 사용된 고급 단추는 이 호박으로 장식을 하였다. 소나무의 가지는 조명용 불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송명 또는 관솔불이라고 하였고, 소나무를 태워 나오는 그을음에 아교를 섞어서 먹을 만들었는데 이를 송연묵이라 하며 먹중에 최고 상품으로 인정된다. 소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식품도 생산되는데 바로 송이버섯이다. 소나무뿌리에 있는 균과 공생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 숲에서만 번식할 수 있는 버섯이며, 송로버섯과 함께 귀한 버섯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나무속에는 3개의 아속이 있으며 120종 이상이 속해있는 큰 분류군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3종류의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나무는 잎이 2장이고, 잣나무는 잎이 5장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재배한 리기다소나무는 잎이 3장으로 잎만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 잣나무와 유사한 눈잣나무, 섬잣나무가 있고, 해송이라 불이는 곰솔도 있다. 곰솔은 소나무에 비하여 잎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금강송, 적송, 백송 등이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나 곰솔을 기준이 되는 변종 또는 생태적인 환경에 의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라는 방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아니다. 한국전쟁(6.25)이 지나고, 보릿고개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산야는 매우 황폐해 있었다. 민가 인근의 산에는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60~7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함께 산림녹화사업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 산에는 소나무가 일렬로 줄 맞추어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 덕에 우리나라 산에는 줄 맞춰서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소나무가 획일적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온대와 아한대가 섞여 있는 산에는 참나무와 같이 잎이 넓은 나무가 더 적당하지만 우리민족의 기상과 선호도가 감안되었고, 그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이 섞여서 소나무가 선택되어 지금도 조림지역에는 소나무가 줄 맞추어 심어지고 있다. 소나무는 조금 더 추운 북한지역에서 보다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이다. 소나무를 좋아하는 민족적 감성도 중요하지만 기후가 점점 더워지는 시점에서 보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소나무를 조금 더 귀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인 듯하다.

참여마당

김휘진
(경제학 2010)

소수자 문제 해결,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

날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 누군가에게 자기를 무시하지 말란 뜻으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다. 이처럼 인간은 주위 시선에 민감한 동물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에서 주인공 그리핀은 색소결핍증을 앓아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고, 이런 다름을 향한 주변의 시선에 고통 받는다.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 남들과 다름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투명인간도 남들과 다른 존재였다. 소수자에서 벗어나려 투명인간이 되지만 여전히 소수자였다.

그리핀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대중의 시선이다. 자신과 다른 소수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하다. 우리주변에 사회적 소수자는 얼마든지 있다. 우연히 새터민 한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인천에 사는 새터민 박태수(42)씨는 새터민들을 선입견을 갖고 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신하고 동등하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의 편견과 차별(22%)이 남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그들은 경제적 문제(10%)나 언어문제(9%)보다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소수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하다. 우리주변에 사회적 소수자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이 소수자를 배척하는데 소수자가 어떻게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왜 굳이 소수자들을 도와야 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과거 여성은 소수자에 불과해 투표권이 없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남성과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란 이유로 방임해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박 씨에게 소수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물었다. 그가 들려준 대답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대답의 요지는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의 실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는 20대 중반에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의 선수다. 커쇼는 매년 비시즌 기간에 잠비아로 떠나 봉사를 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같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1면에서 이어짐

루쉰은 병의 고통과 생명의 사그라짐을 뛰어넘어 해학과 웃음으로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사람을 만드느라 힘을 다 쓴 뒤에 지치고 여윈 채로 죽어가는 여와(女媧)(「하늘을 땜질한 이야기」), 사냥감을 모조리 활로 쏘아 잡아먹은 뒤에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는 생활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예(羿)와 바가지를 긁고 신경질을 부리다가 급기야는 몰래 예의 선약을 훔쳐 먹고 달로 가버린 항아(嫦娥)(「달나라로 도망친 이야기」), 백성과 유리된, 엉뚱한 탁상공론에 빠진 벼슬아치와 달리 실천적이고 도덕적(금욕적)인 우(禹)(「홍수를 막은 이야기」), 충정이니 절개니 예의도덕을 지키려다 굶어죽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형제(「고사리를 캔 이야기」), 500년 전에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내를 다시 살려놓았더니 도리어 옷을 벗어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순경을 부르는 장자(莊子)(「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재탄생한 것이다.

루쉰은 어둡고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리얼한 '비판'(절망에 반항)과 냉소적인 '풍자'와 더불어 농익은 '익살'과 '위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중국 현대문학이란 커다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데는 '민족혼(民族魂)' 루쉰이라는 영원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사신편》에서 루쉰은 어둡고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리얼한 '비판'(절망에 반항)과 냉소적인 '풍자'와 더불어 농익은 '익살'과 '위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이 위대한 작가의 예술적 혼과 지적인 고뇌는 2000년의 가오싱젠(高行健, 1940~)에게, 민중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은 2012년의 모옌(莫言, 1955~)에게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세계문학의 울창한 숲에 그들이 중국 현대문학이란 커다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데는 '민족혼(民族魂)' 루쉰이라는 영원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특별과정	한 · 영법률 번역과정 (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작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화요일 19:00~21:50 ※ 토요일 주간강의 개설예정	

2. 전형방법 : 면접

3. 전형일정

구 분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1. 17(월) ~ 12. 5(금)
전형일	12. 6(토) 14:00
합격자 발표	12. 9(화) 16:00
등록예치금 납부	12. 10(수) ~ 12. 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interlaw.khu.ac.kr)에서 확인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인물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열 전달 연구한 첫 사례
선박 운항 중 '블랙아웃' 상황 대처에 효용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한 박주현(원자력공학 2009) 군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우리학교 박주현 군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그의 논문 〈기울어진 도관 내부의 헬리컬(Helical, 나선) 코일의 자연대류 열전달(Natural Convection of an Inclined Helical Coil in a Duct)〉이 열과 물질전달 분야의 권위지인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Heat and Mass Transfer」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SCI급 논문은 그 게재 건수가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이나 교수들의 연구성과평가 등에 활용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학부생이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학부생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매우 주목할 만한 일

박 군이 처음으로 SCI급 국제학술지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게 된 것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이후다. 물론 처음부터 이 허황되리만치 큰 꿈을 욕심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군대에 있는 동안 틈틈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머리에 남는 것이 없었다"며 "복학한 후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부와 실험을 열심히 했다"고 말한다. 이런 그의 노력은 전국 원자력공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 NtUss)'의 회원 선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모인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활동 및 논문연구활동을 거친 박 군은, 논문발표회(NtUss Forum)에서 독창적인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기도 했다.

이 수상을 통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왕 연구를 시작했으니 제대로 도전해서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을 실어 보자'는 의욕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NtUss'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은 지도교수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됐다. 그의 지도교수인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기존논문 중 수직상태에서 열전달을 연구한 사례는 있지만,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열전달을 연구한 공식적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응용한 주제로 한 번 연구해보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지속적으로 그의 연구과정을 검토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또 매주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선배들 앞에서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것 역시 좋은 논문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결국 그의 끈기와 노력은 빛을 발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수한 반복적 실험이 필요했다. 수치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하나의 그래프를 완성하는 데만 수백 번의 반복실험을 진행해야 해서, 오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실험은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꼬박 16개월 동안 진행됐다.

"공들여 실험했는데 예상하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2/3이상 진행했다가 모두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죠. 밤샘작업도 정말 많이 했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결국 그의 끈기와 노력은 빛을 발했다. 기대했던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정리한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의 논문은 '기존문헌에 없는 실험을 했다는 점'과 '현상론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강제대류에 관한 실험은 있었지만 그가 연구한 자연대류 분야에 대한 실험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는 선박 운항 중 전기가 끊기는 '블랙아웃(black-out)'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박 내 원자로가 자연대류만으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용성을 지닌다. 선박은 운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기울기 마련이다. 박 군의 연구성과는 이

'기울기'에 따라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론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원자력은 그 특성상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의 실험은 자연대류에 따른 소형원자로의 안전성 확보 가능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때문에 정범진 교수는 박 군의 연구에 대해 "이번 연구가 향후 선박용 소형원자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학부생이라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했고 대학원생에 비해 경험이 부족해 연구에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끝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도 연구를 더 잘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관련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 나가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거나 대전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이 되어 한국 원자력계의 든든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학부생들이 더 많은 실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시설개선이나 예산지원 등 실험실 지원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소소한 희망을 말하는 박주현 군. 원자력에 관한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그가 차분하고 성실히 학자의 꿈을 키워나가 미래 과학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라온무역' 팀 '무역구제 경연대회' 대상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무역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라온무역' 팀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제10회 '2014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에서 지난 25일 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무역구제'는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이 경쟁할 때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조치를 의미한다.

이진우(무역학 2010) 팀장 외 12명으로 구성된 '라온무역' 팀은 이번 대회에서 총 8개 대학과 경쟁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덤핑 판정'을 주제로 했다. '덤핑'이란 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는 것으로 현재 수입국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WTO 반덤핑협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한 유정용강관이 부당하게 '덤핑' 판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무역구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라온무역' 팀은 지난 2년 동안 이 대회에 참가했지만 수상은 처음이다. 올해 초부터 사례를 분석하고 협정문을 살피는 등 일찍부터 대회를 준비했고 연극 형식의 발표에 뮤지컬 요소를 접목시켜 타 팀과의 차별성을 꾀한 것이 좋은 성적의 바탕이 됐다. 이 팀장은 "구성원들과 즐겁게 공부했던 것이 수상까지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라온무역' 팀원 명단〉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진우	2010	김예지	2014
황성택	2012	김윤주	
김건웅	2013	박민영	
문예솔		장선우	
이은영		최영대	
이지영		한현욱	
임현희		황보수정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 · 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과목 확인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번부여(학점교류생)	2014. 12. 03(수)	SMS 안내 문자 발송※ 학점교류생에 한함
수강신청기간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4. 12. 15(월) 12:00 (1차)2014. 12. 19(금)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4. 12. 15(월) ~ 12. 17(수) 17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성적열람일	2015. 01. 16(금) 부터	

2. 개설기간 및 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16일간]
나.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캠퍼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다. 개설교과목 수업 시간표 조회 :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게시판에 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11. 17(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링크 클릭

3. 학점교류(타대학 학생이 본교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 추천기한 : 2014. 11. 28(금) 17:00 까지
나. 학번부여 : 2014. 12. 03(수) SMS 개별 문자 발송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나. 수강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학점교류, 국제교류처를 통한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H) 프로그램과 계절학기 동시 수강 가능
* 단 수강가능 학점(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폐강 공고
1) 1차 : 2014. 12. 15(월) 12:00 (1차)
2) 2차 : 2014. 12. 19(금) 09:00 (2차)
라.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5. 수강등록
가.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력사항 : 학년) 2014학년도, 학기) 겨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조회내용 : 신청과목과 납부 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라.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6. 등록 후 수강 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수강포기기간	환불금액	수강포기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14.12.19(금)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작성(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봉)※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4.12.22(월) ~ 12.29(월) 17:00	수강료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4.12.30(화) ~ 2015.01.02(금)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나. 전공 강좌 개설여부는 각 단과대학 결정사항이므로 해당 전공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가함
라. 2014학년도 1학기(포함) 이후 강좌 중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을 불가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3)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이 충족되어도 복학학기에는 필히 등록하여야 함

8. 문의처
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후마니타스칼리지

빛나는 그대여, 경희의 얼굴이 되어라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 국제캠퍼스 4기 모집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소속 공식 홍보대사입니다.

모집인원
00명

지원자격
용모 단정한 본교 1,2학년 재학생
(단, 휴학생 포함 1년 입기를 보장할 수 있는 자)

활동기간
15년 1월 수습기간 진행
15년 3월 ~ 16년 2월까지 정식 활동

활동내용
입학설명회, 캠퍼스투어, 입학처 공식행사 진행
고교생대상 학교 홍보 프로그램 진행
홍보대사 홈페이지 관리 및 입학상담
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학교관련 이미지 모델

활동혜택
총장님 명의 임명장 수여
유니폼 및 명함 제작
기타 활동비 지원

접수기간
12월 1일 (월) ~ 12월10일 (수)

접수방법
지원서및자기소개서 작성후 이메일 접수(khwa5034@khu.ac.kr)
양식 다운로드 : http://blog.naver.com/hi_heerang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선발방식
1차 서류 → 2차 면접 → 3차 수습기간 후 정식 임명

1차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월 15일

문의사항
온라인 http://www.facebook.com/khuheerangG
이메일 hi_heerang@naver.com
전 화 국제캠퍼스 입학처 (031-201-3300)

* 1차 서류합격자 및 면접장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공지된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EERANG 경희대학교 입학처